



자본주의는 취약계층을 제거하기 보다는, 인류를 인류라는 종 그 자체의 생존과 발전에 더 적합하게 만들어왔다. 자본주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모두에게 동등하지는 않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개인의 재산에 대한 약탈을 멈추는 것은, 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발전하고자 하는 주된 신분 상승의 유인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덜 방해 받을수록, 그 결과들은 인류의 번영에 더 많이 기여한다. George Reisman의 말처럼,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경제적 경쟁들은 사실상 모든 사람이 더 오래, 그리고 더 잘 살아남는 결과를 가져오고, 인류에게 가장 많이 재화를 공급하도록 촉진하는 건설적인 경쟁이다.

## 자본주의의 힘

우리가 수십 년의 기간을 보든, 수 세기를 보든, 시장 경제만큼 인류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기여한 체제는 없다. 그 예로 자본주의는 의학기술의 엄청난 발전을 이끌어내어, 이제는 유아 및 아동 사망률이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출산 중 산모의 사망률도 감소했다. 더하여 인류의 기대수명은 수십 년씩 증가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부를 창출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유한 사람들이 자선을 베풀 수 있게 만들었다.

심각한 장애자나 병약한 사람들에게 자본주의 시장 체제는 최고의 경제 체제이다. 이러한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에서라도 결국 다른 사람의 보살핌에 의존한다. 그러나 통제된 경제에서 부의 창출량은 미미하기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 여유가 거의 없다. 반대로 자본주의에서는 일반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잉여 재산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은 과거의 가난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노동의 자유화 및 생산성의 극대화, 극빈층까지도 부유하게 만드는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만드는 자본주의의 능력 덕분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인한 발전에 대한 유인은 대중에게 의학과 기계 등, 다양한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markets-make-more-people-more-fit-all-the-time/>